

SENIOR 조선

SEPTEMBER
2012
VOL.05

멋지게 나이드는 이들을 위한 색선 매거진 senior.chosun.com



Theme of the Month
지금,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각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거쳐 탄생시킨 값진 행복론을 소개합니다.



제네시스 프라다 전시장 :

서울 잠원 전시장(02-3482-5556) | 대치 전시장(02-564-0365) | 개포 전시장(02-556-5105)
일산 전시장(031-904-4141) | 수원 전시장(031-206-0511) | 인천 삼산 전시장(032-529-0011)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클릭서비스 080-600-6000

GENESIS PRADA

용산 전시장(02-793-9711) | 잠실 전시장(02-420-7090) | 경기 분당중부 전시장(031-782-7100)
부산 동래 전시장(051-505-8201) | 울산 남부 전시장(052-267-2200) | 대전 전시장(042-624-6301)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V8 타우(ℓ) 5.0 GDI : 9.0km/ℓ / CO₂ 배출량 : 259g/km / 배기량 : 5,038cc / 공차중량 : 1,870kg / 자동3단(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현대자동차는 자정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비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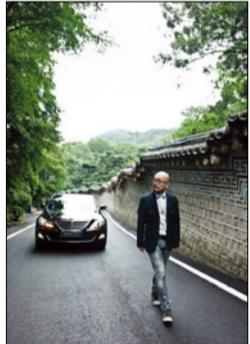
PALZILERI

MILANO ANTWERP LONDON NEW YORK PARIS SEOUL TOKYO

inside

VOL.05 SEPTEMBER 2012

〈시니어조선〉은 멋지게 나이드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입니다.



COVER
현대자동차가 세계적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함께 개발한 고급격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 프리다와
파센자이너 이상봉, 제네시스
프리다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1200대 한정 판매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타우 5.0 GDI 엔진을
탑재하고 최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적용하여 동급 최고의
성능을 자닌 차량이다. 실내 공간은
프라다 고유의 사파이어(Saffiano)
패턴 천연가죽으로 마감한 것이
특징. 라디에이터그릴과 이웃사이드
도어 핸들, 엠블럼 등에는 프라다
기방 버클의 팔라듐 도금이
연상되는 다크 크롬을 적용했다.
문의 02-3482-5556 (점원
전시장), 02-564-0365
(대차 전시장)

- 08 MEMORIES** 少年時代
풍요롭지는 않지만 민족할 줄 알았기에 더없이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유년의 추억 속으로 떠나보는 시간.
- 10 INTERVIEW** 경기대 미술경영과 박영택 교수
지연스러운 미감(美感)을 지닌 세상 모든 사물을 사랑하는 남자. 이 남자가 전하는 일상의 특별한 이야기.
- 12 LOOK** 구두와 운동화 사이
구두는 거추장스럽고 운동화는 지치기 바위 보일까 양설이란다? 해답은 바로 '로퍼'에 있다.
- 13 MASTERWORK** 시계 명장의 비밀
초박형 시계의 기술적 한계를 깨고 정성의 자리에 우뚝 선 시계 명장 피아제. 그 '강장막야'의 비법을 공개한다.
- 14 MY MENTOR** 나를 이끈 최고의 스승
우리 시대의 소중한 멘토들, 그들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가르쳐준 '멘토'는 누구?
- 15 TIPS** 老남새를 잡아라
나이든 사람에게서 나는 특유의 노인체취(老人體臭), 그 원인과 적절한 예방법을 알아본다.
- 16 REVIEW**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연구를 거쳐 탄생시킨 깊진 행복론. 그 일찌베기를 소개한다.
- 18 SPECIALIST**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상무
은퇴 후의 삶은 바캉스가 아니다. 스페셜리스트에게 듣는 은퇴 전략 혹은 노년기의 비범한 삶의 방향.
- 20 THIS CAR**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프리다'
디자이너 이상봉과 제네시스 프리다만났다. 최고의 디자이너가 평한 최고의 자동차. 그들의 패션을 한 이야기.
- 22 HEALING TOWN** 치유 컨텐츠 가득한 '동의본가'
한옥에서 한의학 치료를 받으며 삶을 다스리는 곳. 9월 중순 오픈을 앞둔 산청 동의본가에 미리 다녀왔다.
- 24 FINANCE** 퇴직연금 활용 백서
직장인이라면 인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는 필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퇴직연금 활용 전략을 알아본다.
- 25 COMMUNITY** 2012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
미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의 시니어 관련 기관들이 집결하는 국내 최초의 글로벌 시니어 행사. 놓치지 말자.
- 26 ENTERTAINER** 가수 이은하
뮤지컬 〈메노포즈〉로 돌아온 전설의 디비 이은하. 그녀가 전하는 나이 드는 것의 진정한 의미.
- 27 CULTURE** 이달의 문화
기음을 더욱 풍기며 만들어줄 문화 소식. 전시, 공연, 영화 등 풍성한 불거리가 한가득.

PUBLICATION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상무 김형래 hr.kim@yourstage.com
팀장 전영선 ys.chun@yourstage.com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출력 아이엔지프로세스

EDITORIAL & ART
편집장 정지현 loctoc@chosun.com
선임기자 박소란 psr@chosun.com
객원기자 노준형 n.roh@yourstage.com
박철진 soopook49@naver.com
김선미 20olive@naver.com

포토그래퍼 C.양상미
디자인 별다자인
미술교정 김경애 eesiwon@naver.com
교열 이은순 anyway@hanmail.net

MARKETING & ADVERTISING
총괄부장 박정운 jpjh@chosun.com
팀장 정하나 hana@chosun.com
대리 총은애 bhong@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jn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ff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86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목동, 익선동, 한남동, 등부이촌동, 원효로, 한강로, 명동, 남대문로, 무교동, 공덕동, 서교동, 디자일동, 강기분당, 과천, 일산, 영동, 기흥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지역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배포됩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거나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대표 매거진포털 APP
‘펍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Present for Readers

대한민국시니어브랜드대상 소니어조사
설문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추첨을 통해
300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조사부문 2013 대한민국시니어브랜드대상
참여대상 대한민국 시니어 및 시니어 리아프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기간 2012년 9월 7일까지
참여방법 SENIOR.CHOSUN.COM
WWW.YOURSTAGE.COM
WWW.SENIOREXPO.COM

경품내역 50인치 3D TV,
스포츠센터회원권, 호텔이용권,
금고, F1대회 경기권권,
뮤지컬관람권, 메디컬스킨케어
이용권, 보톡스시술권, 스마트매드,
스마트폰, 외식상품권,
커피음료교환권 등.

결과발표 2012년 9월 26일(수)
시니어조선 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senior.chosun.com)
또는 이메일 (senior@chosun.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OREANGP.KR

2012 KOREAN
GRAND PRIX
Formula 1

세계10인의
스피드축제 F1 절주!!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10. 12~10. 14/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티켓판매처 : 옥션티켓, 공식홈페이지(www.koreangp.kr) / 콜센터 : 1588-3448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2012 대회일정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티켓 가격

10월 12일 금요일 연습주행 I 10:00 ~ 11:30, II 14:00 ~ 15:30

▶서킷 첫 연습주행(주전 외 Test 드라이버도 참가 가능)

10월 13일 토요일 연습주행 III 11:00 ~ 12:00, 예선 : 14:00 ~ 15:00

10월 14일 일요일 결승전 15:00 ~

▶선전 성적에 따라 배정된 출발 라인에 정렬 / 3m 간격으로 엇갈려 출발

▶레이스 1위부터 10위까지 드라이버 각각에 25 / 18 / 15 / 10 / 8 / 6 / 4 / 2 / 1점 부여

▶상위 1~3위 시상(우승 드라이버 국가 개인 및 국가 연주 / 우승팀 국가 연주)

등급	좌석 명	전일권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R	메인그랜드스탠드	890,000	720,000	340,000	20,000
S	그랜드스탠드 A	600,000	480,000	260,000	15,000
A	그랜드스탠드 B ~ J, L	-	120,000	80,000	10,000

2012 FORMULA 1™ KOREAN GRAND PRIX

The F1 FORMULA 1 Logo, F1, FORMULA 1, 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 KOREAN GRAND PRIX and related marks are trade marks of Formula One Licensing BV, a Formula One group company. All rights reserved.

MEMORIES



1963년 부산



1987년 부산



1965년 부산



1992년 부산



1966년 부산

少年時代

리어카에 달린 카세트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동요가 동네 골목에 울려퍼질 때면

어머니 치맛자락을 불들고 졸졸 따라다니며 '10원만!' 하고 조르던 그 시절.

집에 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던 그때.

<로보트 태권V>가 방송되는 날이면 우리집 거실로 옹기종기 모여든 친구들 앞에서 웬지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던 그 시절.

새학기의 가장 중요한 학급 행사인 반장 선거 때.

내 이름 아래에 '바를 정(正)' 획이 하나하나 더해져도 짐짓 담담한 체하나

마음 속으로는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칭찬받을 생각에 입술을 셀룩거리며 미소를 주체 못 하던 그 시절.

형이 타던 자전거를 물려받아 비록 헌 것일지언정 내 소유의 자전거가 생기던 그때.

온너드라이버로서 누이동생, 친구를 태워줄 수 있다는 기쁨에 훌쩍 어른이 되어버린 기분이 들던 그 시절.

그때 그 시절은 풍요롭지는 않았으나 만족할 줄 알았기에 더없이 행복했던 것이 아닐까.

최민식은 국내 다큐멘터리 사진 1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작품은 서민들의 고단한 생활을 책�나하면서도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도록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85세인 그는 부산에서 자김치시장을 주요 작업 무대로 삼아 여전히 사진 작업을 하고 있다.

연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의 사람들 일상을 담아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년시대>는 현재 롯데갤러리 대전점에서 전시 중(~9월5일)이며, 이후 롯데갤러리 인양점에서 전시(9월19일~10월11일)될 예정이다. 문의 02-726-4456



WORLD'S BEST
SINGLE MALT WHISKY

Glenfiddich®
SINGLE MALT
SCOTCH WHISKY

INTERVIEW



박영택 교수는 소문난 수집광이다. 경기대 내 그의 연구실은 미술품은 물론이고 범주를 넘나드는 수천 수만의 다양한 사물들로 빼곡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차곡차곡 쌓인 물건들 사이에는 거의 여백이 없다.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그의 농담을 단지 농담으로 흘릴 수만은 없는 상황. 그런 그가 올 초 자신의 엄청난 수집벽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간 수집한 사물을 가운데 특별히 애정이 깊은 것들에 대한 짧은 글을 모아 『수집 미학』이라는 책을 펴냈다. 『수집 미학』의 서문에 쓴 그의 고백을 읊기면 이렇다. “귀엽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 그러나 기품 있고 자연스러우며 과도하지 않은 미감을 두른 것들을 찾는다. 그것은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다. 보는 순간 깨닫는다. 언제나 그토록 예민하고 감각적인 것들을 골라내는 안목과 마음을 갖고 싶다. 그들을 지독히 편애하면서 살고 싶다. 결코 문드러지지 않는 감수성과 좋은 것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욕망으로 끝까지 가고 싶은 것이다.”

일상에서 즐기는 예술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이 남자의 수집벽은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린 시절부터 감각을 사로잡는 것들을 감상하길 즐겼어요. 어렸을 때는 특히 책이나 문구류에 탐닉했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으니 맘에 드는 것을 모두 살 수는 없었지만, 늘 그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부모님 조차 그런 아들을 매우 유별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후 성인이 되고 미술사를 전공하면서 수집은 점차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든다. 미술품이나 골동은 물론이고 책, CD, 문구, 컵, 부직, 하다못해 돌멩이까지 그의 미감을 사로잡은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연구실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보통 수집가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도구로서의 사물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그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지침이다. 그런 면에서 그의 수집은 일종의 예술적 행위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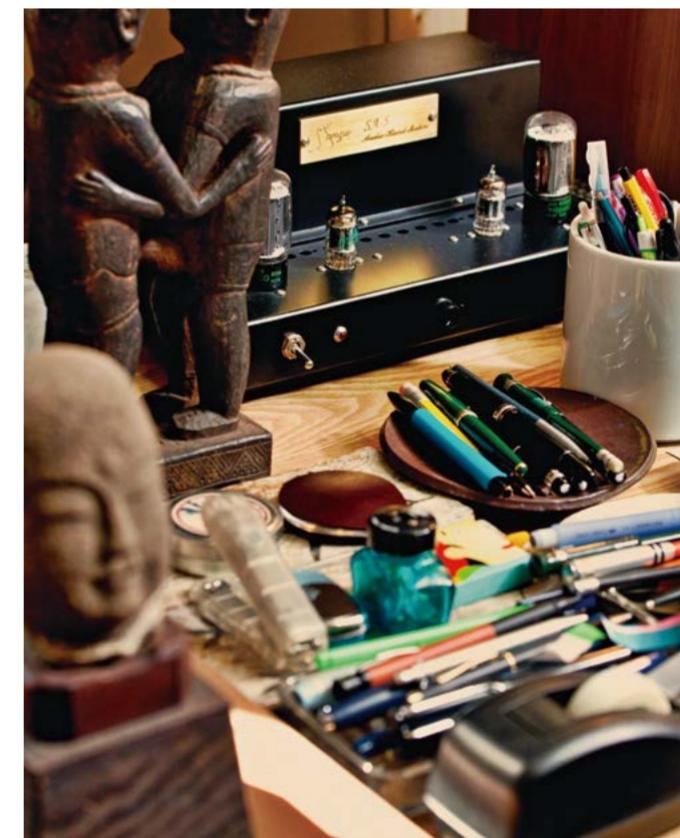
전통적인 도상에 소박한 미감이 흐르는 귀이개. “귀안으로 조심스레 밀고 넣으면 누군가 몸 안으로 들어와내 의사과 마음의 한 구석을 조심스레 살피는 것 같다.”

박영택 교수는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에서 미술교육을, 동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졸업 후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제2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2010 이사이프 총감독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경기대 예술대 교수, 동아미술제 운영위원, 박수근미술관 자문위원,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지금껏 50여 회의 전시를 기획했으며, 평론가로서 여러 편의 리뷰·서문·작가론을 썼다. 저서로 『예술가로 산다는 것』, 『미술전시장 가는 길』, 『예술가의 작업실』, 『수집 미학』 등이 있다.

경기대 미술경영과 박영택 교수 어느 수집狂의 특별한 일상



책갈피에서 종이의 단면을 밀고 들어가는 날렵하고 세련된 미감을, 변색된 종이에서 오랜 시간 끼를 견뎌낸 자의 경건함을 읽어내는 남자가 있다. 세상 모든 사물들에 경이와 찬사를 보낼 줄 아는 이 섬세한 남자의 작업은 미술평론가. 그런 그의 방은 수천 수만의 사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그 방의 온갖 사물들은 일찍이 미(美)의 날개를 달았다.



수공의 냄새를 짙게 풍기는 네팔제 책상용 빙자루, “특별한 장식을 하거나 과도한 미적 육각을 부여하지 않고 자연 재료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구업고, 조그마한 물건,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최고의 디자인 깊이으로 미무리된 현대사회의 도구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김동을 준다.”

“일상에서 우리는 실용적 차원으로 물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것들은 모두 매혹적인 디자인의 외피를 지니고 있죠. 불행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녜요. 내 기준으로 그것은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죠. 색상이나 디자인 등이 주는 심미감이 중요해요. 맘에 드는 물건을 사서 치켜보는 재미가 있어요.”

수첩이나 연필, 연필깎이 등 일상의 소소한 도구들이 그에게는 모두 ‘감상’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주로 그의 눈을 끄는 물건은 이런 것. 적절한 디자인에 무심한 미감을 지닌 것.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것. 그것이 어떤 기능을 지닌 물건인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사용함으로써 얻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자체로도 즐겁다면 그것만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지론이다. 자신을 사로잡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물건이든 개의치 않는다. “뒤샹의 ‘변기’ 같은 거예요.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그것을 바라보는 사

람의 눈이죠. 펜 한 자루, 노트 한 권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돌멩이를 보세요. 얼마나 매혹적인가요. 꺾이고 꺾인 최후의 얼굴을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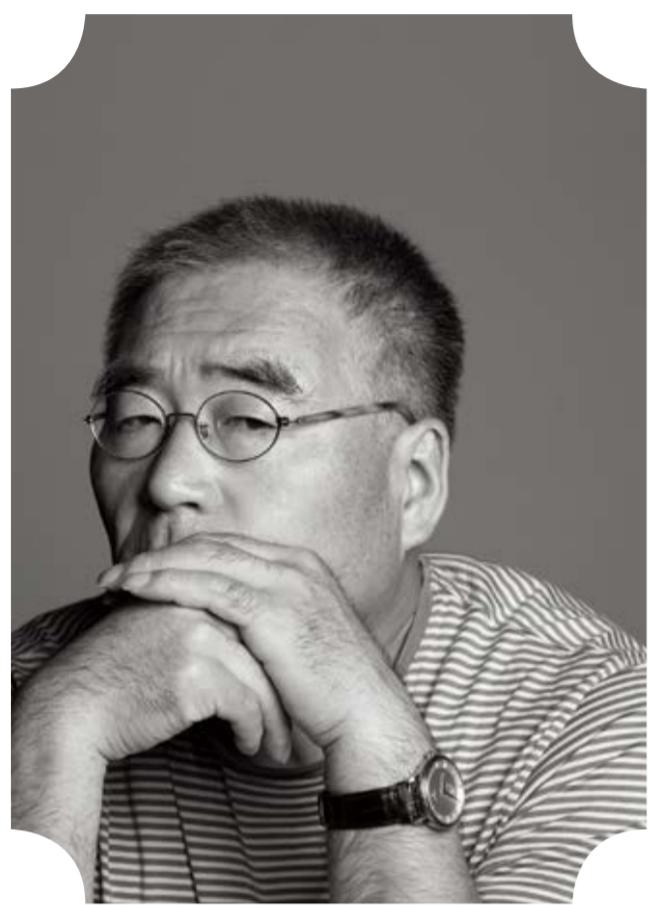
‘나’를 사로잡는 것

박 교수는 이 같은 의미 부여, 즉 감상의 행위가 세상을 좀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말한다. “돈으로 환산되는 값어치를 먼저 따져서는 안 되죠. 자신을 사로잡는 물건을 만나고 그것을 고르는 일에 집중해야 해요. 타인이 아닌 자신의 안목을 믿고 진짜 원하는 것을 택하세요.” 이런 그의 목표는 자신이 수집한 물건들을 마지막까지 다 향유하는 것. “특별한 목표는 없어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가득한 이 방에서 매일 보고, 읽고, 듣는 게 원하는 전부죠”라고 말하는 그는 얼마나 순수한 수집가인가. 또한 얼마나 열정적인 예술가인가.

사진 가장 왼쪽 카르티에 브레슬리 평생 동안 사용했다는 라이카 카메라. “금속성의 질감이 빛나는 단호한 철제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 미니멀한 감성으로 치밀하게 마무리된 형태에 나는 매료되었다.”



MY MENTOR



배병우 사진작가
멘토 서양화가 이대원

이대원(1921~2005) 화백은 나무와 과실 등 자연을 주제로 한 독자적인 화풍으로 우리 화단을 뛰어난 거장이다. 흥의대 총장과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나는 1975년 흥의대 미대 조교 시절 학장으로 계시던 이 화백과 첫 인연을 맺었고 둘다 사시가 전까지 줄곧 곁을 지켰다. '미술계의 신사'로 불릴 만큼 실력과 인품 면에서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분을 존경했다. 생전 기꺼운 이들을 행기는 마음 쓰씀이 특히 대단하셨는데, 개인전 하는 후배들의 작품을 일일이 사주고 꽂았으며 금일봉을 챙겨주는 것도 잊지 않았으셨다. 예술계에는 자신의 아성을 쌓기 위해 타인에게 베푸는 유연성을 가진 이가 드문데, 그런 가운데 이 화백은 우리의 귀인이 되셨다.

멘토의 말씀 생전 이 화백의 그림 사진은 모두 내가 찍었는데, 제자가 당신의 그림을 찍은 것을 무척 좋아하셨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나 너한테 양복 한 벌 해 주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농담으로 "두 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내가 우리 사위와 같은데, 안 된다" 하시더니, 막상 양복집에 가보니 두 벌이 주문해 있었다. 언젠가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 "영우 네 사진은 언젠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늘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하라."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나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이 대원 외교부 대표

멘토 아버지 이상신
이상신(1927~2011)은 목회자로 평생을 살다 가신 분이다. 그럼에도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제외한 것은 무엇이든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고스톱과 맥주를 가르쳐주시기도 했다.

"네가 비록 기독교인이나 남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오락이나 술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틈나마에는 말거라"는 뜻을 전하셨다. 유신 시절

군 장교 출신임에도 단상에서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셔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셨다.

그리고 말기에는 목회자가 없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생을 마감하셨다. 둘이나 둘 무렵

치마와 중풍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늘 웃음으로 대하셨다.

올바른 삶을 평생에 걸쳐 몸소

보여주신 분이다.

멘토의 말씀 "무조건적인 긍기는 오히려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라."

"네 자신의 정신이 아무리 자주롭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배려해서

행동해야 한다. 나는 자유롭다고 행동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남을 위해 살아라."

나를 이끈 최고의 스승

현명한 스승을 뜻하는 '멘토'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서 유래한 말이다. 전쟁에 출전한 오디세우스왕의 노우(老友)이자, 왕을 대신해 그의 아들을 이끈 스승 멘토르가 오늘의 멘토가 되었다. 어쩌면 전쟁 같았을 당신의 하루하루, 용기와 희망을 가르쳐준 멘토르는 누구인가?



유재하 농구감독(울산 모비스 피버스)

멘토 견종대 총장 방열

방열 총장님은 과거 현대나 기아 등 내로외하는 실업팀의 농구감독으로 활동하신 분이다. 대학 졸업 후 내가 기아의 첫 창단 멤버로 활동하던 무렵 방총장님이 김복으로 계셨다. 그때 아침에 농구를 주셨다. 도전정신을 가르쳐주셨다. 10여 년간 기자로 활동한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돌아와서는 대한기족계획협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일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유니세프의 문을 두드리기 몇 년 전이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UN 신사 기관에서 일하게 된 딸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을 것이다. 멘토의 말씀 "인간관계에서 절대 비겁하지 말라. 권력 앞에 특히 당황하라. 물러나 있지 말고, 늘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을 뜯는 삶이 도움을 받는 삶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내가 50년 넘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아버지의 이 같은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유경호 미술평론가

멘토 루이즈 부르주아 루이즈 부르주아(1911~2010)는 거미 조각으로 유명한 미국의 설치미술가다. 에로스, 즉 생명력의 극적인 여자. 그녀는 70세에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80세에 이르러서는 아예 작업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루에 무려 4점의 작품을 완성했다. 세계의 젊은 예술가들을 작업실로 불러들여 토론을 즐기기도 했다. 그렇게 100세까지 예술과 함께 살았다. 나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녀의 80대 때 얼굴을 컴퓨터 배경화면에 걸어놓았다. 나도 그녀처럼 멋지게 늙고 싶다.

멘토의 말씀 누군가 부르주아에게 물었다. "예술을 왜 하는거죠?"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다. "시원하고 싶어서요!" 또 이런 말도 남겼다. "예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만든다. 나는 예술의 순기능을 믿는 낙천주의자다. 낙천주의는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TIPS



老냄새를 잡아라!

나이가 들면 사람의 냄새에

특유의 냄새가 난다. 흔히

노인체취(老人體臭)라고 하는데,

이는 특별한 질환은 아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노인체취의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자.

사람의 체취를 구성하는 성분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가장 주된 성분은 다름 아닌 땀. 겨드랑이나 발에서 나는 땀이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해답을 찾지는 못한 상황. 한

림대 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김혜원 교

수는 "지금까지 밖에 따르면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불포화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헥세날(Hexenal),

옥테날(Octenal), 노네날(Nonenal)과 같은 불포화알데하

이드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불포화알데하

이드의 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유발된다

는 얘기다. 불포화알데하이드는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몸에서 많이 생성되지만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이때 치료법으로는 땀이 과다하

게 분비되는 부위에 염화알루미늄 성분의 약을 바르거나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불포화알데하이드의 양

보톡스 주사를 맞는 방법, 전해질 용액에 중상 부위를 담근

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

진 바는 없다. 다만 피지가 생성되는 것 자체가 난성호르몬

온영동법(iontophoresis), 그리고 국소 피부 절제법이나 피

하조직 절제법과 같은 외과적 수술 기법 등이 있다.



화상회의의 새로운 물결

서울에 있는 김 대리는 윤산의 이 과장과 매일 아침마다 출근 시간을 이용해 자동차 안에서 회의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것이라는 기준의 인식을 틈피하고, 전면적으로 대중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모바일 화상회의 전문 기업 비도(Vidyo)의 심경수 한국사업장의 설명이다. 이처럼 모바일 화상회의가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기존의 어느 IT 기기 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 한 아인 제3의 공간에서 직원 개개인 혹은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용이해졌을은 물론, 이로 인해 기업문화까지 바뀌고 있는 추세다. "향후 2년 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4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모바일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화상회의 있다는 점, 디자인의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모바일 화상회의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REVIEW

지금

행복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내일을 준비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행복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벨기에의 교육 잡지 <클라세>의 편집장 레오 보만스가 엮은 <세상 모든 행복>에는 100명의 학자들이 저마다 연구를 거쳐 탄생시킨 100가지의 값진 행복론이 담겨 있다. 그중 인상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행복요리법은 있다”

두브라브카 밀코비·마이다 리아벡

냉소주의자들은 행복을 만드는 요리법 같은 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심리학자인 두브라브카 밀코비과 마이다 리아벡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요리사가 시도하고 증명해낸 ‘행복요리법’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들이 귀띔한 레시피는 다음과 같다.

기본 재료 밀을 수 있는 친구,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도전적인 일, 기본 욕구를 채워줄 만큼의 돈, 매일 세 가지의 좋은 일. 만약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

선택 재료 한 명 또는 그보다 많은 아이, 섬김과 신앙, 몇 년 이상의 공부, 몸과 마음의 건강, 가끔 실패와 좌절의 쓴맛.

이 재료들에 자신만의 철학을 더해 섞어 볶거나 끓인 다음 완성되면 궁정적인 생각, 밝은 얼굴이라는 접시에 담아 대접하면 된다. 어떤가. 맛도 영양도 일품인 명품 보양식 아닌가.

하십니까?

Tip

행복 데이터베이스

레오 보만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고? 어렵지 않다. 공부하면 되니까. 행복학개론 공부에 도움이 될만한 웹사이트를 하나 추천한다. 행복에 관한 연구 결과를 빼곡이 쌓아둔 곳으로, ‘행복 교수’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의 루트 빈호벤이 총 책임을 맡고 있다. 여기에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롯해 행복 관련 연구 결과와 참고문헌, 신빙성 있는 행복 측정 방법, 설문으로 만들어진 국가 행복지수 등 행복과 상관관계가 있는 정보가 두루 담겨 있다. www.worlddatabaseofhappiness.eur.nl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삶을 사는 방식이다” 일로나 보나웰

영국 이스트란던대학의 응용긍정심리학자 일로나 보나웰은 행복 연구에서 그 무엇보다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과 시간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는지가 행복을 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 하지만 여기서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말이 일분일초를 다뤄가며 바쁘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 관리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바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 그보다는 시간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느냐의 문제다. 내가 깨달은 것은 매일 자신을 위해 일정한 시간을 빼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한 시간과 남을 위한 시간, 해야 할 일을 하는 시간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을 엄격히 구분할 것.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풍요롭게 즐길 것. “자신의 시간은 반드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상사 때문에, 일이 밀려서… 세상은 넓고 평계는 많다. 그러나 시간을 책임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잘 다루게 된다” 레이날도 알라콘

페루 산마르코국립대학의 심리학자 레이날도 알라콘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을 건강, 신앙,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조건들은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나이와 행복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까. 이에 대한 알라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보통은 젊은 사람들 이나이든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배우자나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보면 늘 60~70대가 더 행복하다. 이는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겪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지나치게 요란 떨지 않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기다릴 줄 안다.” 알라콘은 지나치게 강렬한 감정적 경험은 행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강렬한 감정은 오히려 인생의 조화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고요하고 잔잔한 만족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정신건강 심계명

아이슬란드의 심리학자 도라 구드룬 구드문스도티르가 만든 10가지 행복 조언.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아이슬란드의 가정집 낭장고에는 그녀의 심계명이 붙어 있다.

- 01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 02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라.
- 03 사는 동안 계속 배워라.
- 04 실수에서 배워라.
- 05 매일 운동하라.
- 06 쓸데없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 07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라.
- 08 포기하지 마라. 성공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 09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라.
- 10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꿈을 쫓아라.

“행복 뇌를 자극하라” 유광웅

말레이시아 출신의 복지생태학자 유광웅은 다소 실험적인 행복론을 설파한다. 두뇌 자극과 같은 과학 기술의 힘을 빌리면 행복의 값은 새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러 실험 결과, 인간은 보통 시각·촉각·후각·미각 등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을 때쾌락을 얻는다. 이 같은 페락이 행복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 그는 이렇게 말한다.

“1954년 쥐의 ‘쾌락증후’를 전기 스위치로 자극하자 퀘감을 얻기 위해 쥐가 먹이도 먹지 않고 스위치만 누르다가 쓰러졌다. 이것은 두뇌에 직접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면 강렬하고도 지속 가능한 페락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아직 많은 이들이 뇌에 인위적인 자극을 가하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언제나 처음은 부자연스러운 법. 페락증후를 자극하는 새로운 기법을 거부하기보다. 두뇌 자극 실험을 시도한 지 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 왜 좀 더 안전하게 뇌를 자극하는 연구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느냐고 따져야 하지 않을까?”

유광웅의 말대로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기술의 힘을 빌려 비약적인 행복을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락과 행복의 관계,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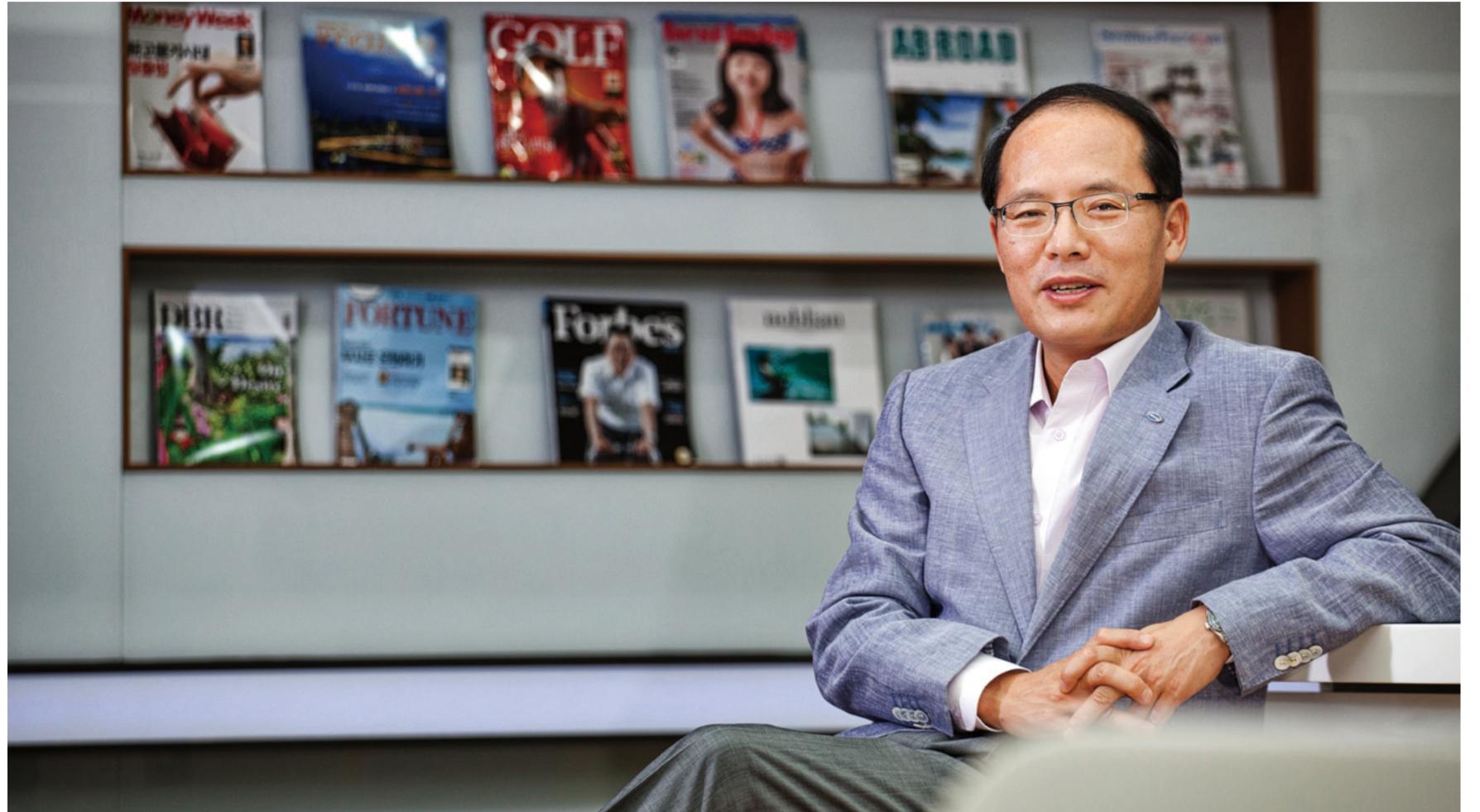
“마음 가는 것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자”

알렉산드라 갱글마이어-불리스크로프트

뉴질랜드 오타고대학의 경영학자 알렉산드라 갱글마이어-불리스크로프트는 행복과 소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행복을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 “행복은 우리 가 무엇을 선택하여 소비하는지, 소비를 통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자란다. 친구와 쇼핑을 하고 파티를 열거나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사람마다 다르다. 각자의 생활방식에 맞는 건강한 소비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갱글마이어-불리스크로프트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보이는 특성들이 있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 생활이 가능한 수입, 보다 높은 교육 수준, 안정된 직업, 원만한 대인관계 등. 그러므로 교육 수준이 높고 재산이 넉넉한 이들은 화려한 쇼핑몰에 가고 친구와 고급 레스토랑에 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데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는 것. 시장경제 체계에서 돈을 쓰는 행위는 엄연한 생활의 일부가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너무 거창한 것으로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변을 돌아보면 구석구석 우리를 즐겁게 할 뭔가가 숨어 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다. 공부하든, 결혼하든 또는 운동을 하든, 사람을 만나거나 취미를 갖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행복해지려면 마음이 끌리는 것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쓰자.

SPECIALIST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상무 은퇴는 인생의 바캉스가 아니다

은퇴하고 나면 여행 다니고, 악기도 배우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해보겠노라며 핑크빛 꿈을 꾸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노년기는 열심히 살아온 젊은 시절에 대한 보상의 시기인 것일까? 각 단계별로 인생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

연말 보너스를 받은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 그 시기에 맞는 삶의 계획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온통 은퇴 관련 기사가 넘쳐난다. 노후 준비가 안 된 이들이 많아 잔뜩 겁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 운운하며 치열한 사회적 경쟁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이뤄볼 수 있는 호시절이라고 잔뜩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방송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같다. 노년에 빙고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서는 재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 좋다. 60대에도 40대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고 매달 꼬박꼬박 일정 애의 연금이 입금된다 치자. 그렇다면 그다음은? TV에 소개되는 맛집 찾아다니고,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헬스클럽에 가는 것으로 소일하며 지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 보험이나 저축에 많이 의존합니다. 재정적 준비가 곧 은퇴 이후 삶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건강관리만 잘한다면 그려저역 괜찮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재무와 건강은 노후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노후 설계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의 말이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 들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2050년이면 인구의 41%가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의식과 준비 수준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50년 앞서 맞은

우재룡 소장이 추천하는 노후 설계를 위한 필독서

품위 있는 죽음의 조건
이름다운 미무리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흔히 죽음을 논하는 것을 디비시하지만, 웰다잉(well-dying) 할 수 있는 사람이 웰빙(well-being) 할 수 있다.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끔 하는 책이다. 아이라 바이오크 저, 물푸레

은퇴의 기술
은퇴 관련 서적 중에는 자나깨기 김성철이거나 ‘~해야 한다’는 식의 선언서에 기꺼운 경우가 흔하다. 반면 이 책은 질문에 답하고 쓰고, 체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유형을 알아내고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수시로 체크하게 한다. 일종의 학습서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셀프아이드 역할을 한다. 데이비드 보치드 저, 황소걸은

인생의 재발견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애도할 것인지, 노화로 인한 수치심과 질투심을 조절하는 법, 부모·부부·자녀·형제자매 간 인간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조언한다. 제대로 나이 들기 위해서 왜 공부가 필요인지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책이다. 가볍게 쓴 책이지만 저자가 노인 심리를 상담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많다. 헤르트무트 라데볼트·홀데기르트 라데볼트 저, 알레이치코리아

대한민국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www.seniorexpo.co.kr



2012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 Seoul International Senior Expo

| 2012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에서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

전시목록 (참가대상업체)

구 분	내 용
금 융	보험상품, 금융상품, 연금, 자산관리 등
레 저	여행상품,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오락 / 휴양시설 등
건 강	고령친화용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병원 및 의료센터 등
생 활	노인생활용품, 전자제품, 귀농귀촌, 패션의류 등
인 식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 등
관 계	홈케어서비스, 너싱홈, 노인상담센터 등
주 거	주거보조시설, 인테리어, 실버타운, 고령자 주택 등
직 업	시니어 직업훈련센터, 시니어 고용희망업체 등
기 타	정부부처 정책홍보 및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상품, 서비스

문의처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 운영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강남파이낸스센터 25층 (주)시니어파트너즈
신청 및 문의 전화 | 02-3218-6245 팩스 | 02-3218-6280
이메일 | expo@yourstage.com

2012. 10. 4 (목) – 2012. 10. 5 (금)

서울 삼성동 coex, Hall B & Grand ballroom

주최 ChosunMedia 시니어조선 주관 SENIOR PARTNERS

후원 ChosunMedia 조선일보 ChosunMedia 디지털조선일보 MIKE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Global Partner AARP

THIS CAR

명품다운 격조와 디테일, 제네시스 프라다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이 제네시스 프라다를 만났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는 이 '패션블루한 자동차'를
운전해본 후 "욕심이 나는 차"라고 평했다.
지난 8월, 삼청동에서 차량 시승을 마친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제네시스 프라다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자기만의 확실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사람과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든다. 장년층은 물론이고 30~40대 젊은 CEO들도 선호할 듯하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제네시스 프라다와 잘 어울렸다. 평소 가죽 팬츠와 롱 재킷, 화이트 셔츠와 액세서리 등을 조합한 세련된 옷차림으로 유명한 그는 제네시스 프라다의 지향점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 마디로 젊고 세련된 느낌! 한글을 모티프로 한 다양한 의상, 우정사업본부가 의뢰해 디자인한 집배원복 등으로 화제가 된 그는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열리는 '컨셉코리아', 태국에서 개최하는 오토 쿠튀르 컬렉션, 패션 위크 준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최근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는 그가 차분히 말했다.

“예전에는 자동차와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 꽉 막힌 도로에 서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 없었다. 하지만 쏘나타 신차 출시 기념 패션 등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자동차가 나와 내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대변한다는 느낌이랄까. 내부 디자인, 차체 색상 등 모든 부분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바꾸는 일이 점점 더 일반화될 것 같다.” 제네시스 프라다에 대한 애정도 확실히 표현했다. 여행을 좋아하는 그는 “제네시스 프라다를 타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곳곳을 천천히 돌아보고 싶다. 편안하고 안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디자인이 뛰지 않으면서도 격조 있어 차분한 여행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다.

사파이어노 패턴이 돋보이는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내부

‘제네시스 프라다’는 세계적인 패션 기업과 협업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차 모델이다. 최고의 디자인과 성능, 내장재로 정점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자동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명품을 내놓은 거다. 이상봉은 “제네시스와 프라다는 공통점이 많다.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의 혁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럭셔리를 지향하며 세련된 라이프스타일과 잘 어울린다. 프라다도 마찬가지다. 최고만을 선보인다는 고집이 대단해 언뜻 클래식한 느낌이 강하지만 꾸준히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다. 이것이 제네시스 프라다가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다”라고 평했다.

현대자동차는 2011년 청담동 ‘비욘드 뮤지엄’ 전시관에서 보도 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지난 2009년 서울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2년 만이다. 프리미엄과 희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200 대만 한정 생산, 판매한다. 주문 생산 방식이며 일부 해외 국가에도 판매를 하고 있다. 시승을 마친 이상봉 디자이너는 “패션 명품 브랜드 특유의 섬세함과 장인 정신이 시트에 잘 구현됐다. 프라다 고유의 사파이어노(saffiano) 가죽을 사용했는데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이 있다”고 말한다. 사파이어노 패턴을 적용한 천연 가죽은 프라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품질을 대표하는 상징적 소재로 제네시스 프라다 양산 모델을 위해 스티치 짚기와 간격까지 정확하게 통일해 정교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사파이어노 패턴은 크래쉬 패드와 도어 트림, 시트 등 실

내 공간 곳곳에 적용됐다. 색에 민감한 패션 디자이너답게 엔진 커버 역시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본넷을 열면 볼 수 있는, 폭발적 주행 성능을 이끌어내는 심장의 덮개, 메탈릭한 느낌인 데다 V8 엔진을 상징하는 8개의 작은 판이 독수리 날개처럼 펼쳐져 있어 입체적 매력을 풍긴다. 이 세시한 커버 안에는 타우 V85.0 GDI 엔진이 탑재돼 있다.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최고급 대형 엔진으로 최고 출력 430마력, 최대 토크 52.0kg.m, 연비 9.0km/l의 성능을 자랑한다. 이 엔진은 지난해 미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 <워즈오토(Wardsauto)>가 ‘2011 10대 최고 엔진’으로 꼽아 화제가 됐다.

승부는 결국 디테일에서 갈린다

이 밖에도 제네시스 프라다의 뛰어난 디테일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고급스러운 편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특수 도장 방식을 이용한 외관 컬러가 대표적이다. 블랙 네로(Black Nero), 블루 발티코(Blue Baltico) 색상은 제네시스 프라다의 모던한 느낌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엠블렘 등에는 프라다 가방 버클의 팔라듐 도금이 연상되는 다크 크롬을 적용했다. 프라다에서 직접 디자인 한 19인치 알로이 휠과 외장 안테나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다. 동승석 플로어 콘솔 측면에는 제네시스 프라다의 로고와 차량 고유 번호가 새겨진 ‘시리얼 넘버 플레이트’를 부착했다. 운전석에 앉으면 구석구석 최고의 가죽으로 정성 들여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도 비밀이 있다. 일간타라 브랜드 가죽이 그것. 이는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이 나는 최고급 소재로 천장과 사이드 팔라 yer을 이 가죽으로 마무리했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혁신성과 매력을 가미하는데 하드웨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진정한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결코 소프트웨어에 공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 모두 모여 각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딱 들어맞는 명품이 완성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네시스 프라다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자기만의 확실한 라이프스타일이 있는 사람과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든다. 장년층은 물론이고 30~40대 젊은 CEO에게 제격이다. 언뜻 혼자서 즐기는 드라이브를 떠올리기 쉽지만 가족과 함께 어딘가로 떠나거나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기에도 적합한 것 같다. 5000cc급 대형 차량에서 이런 모던한 느낌을 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했다.

모던 명품의 상징답게 제네시스 프라다는 판매 단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다. 차량을 구매하는 모든 이에게는 현대 자동차와 프라다가 공동 개발한 사파이어노 패턴 가죽의 키홀더와 북 케이스를 함께 제공한다. 차량은 특별 제작한 전용 트레일러를 이용,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GP500 단일 모델이며 판매가는 7718만 원이다.

제네시스 프라다의

탄생 배경

현대자동차와 프라다의 만남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4월 서울 경희궁에서 선보인 ‘프라다 트랜스포머’ 프로젝트의 한국 파트너를 맡식었던 프라다 측은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부문 공동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제안했고 이를 현대자동차가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제네시스 프라다의 디자인 작업이 시작된다. ‘프라다 트랜스포머’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패션 외에 미술, 건축,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 제품을 내놓는 프로젝트다. 양사의 협의 끝에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전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던 제네시스가 혁신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결정됐고 현대차는 제네시스 1대를 밀리노로 보낸다. 밀리노는 프라다 디자인 연구소가 있는 곳으로, 현대자동차와 프라다의 디자이너들은 이곳에서 함께 작업하며 제네시스 프라다를 탄생시켰다.



HEALING TOWN

한옥과 한의학
치유 컨텐츠 가득한 힐링 타운
동의본가



외국에 특별한 호텔이 생기면 가끔 부러움을 느낀다.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한 숙소는 여행자의 큰 즐거움이다. 그런데 얼마 후면 국내에도 그런 곳이 생긴다. 한옥에서 한의학 치료를 받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곳, 동의본가다. 9월 10일 베타오픈을 앞두고 미리 다녀왔다.



‘웰빙을 넘어 힐링 시대가 온다.’ 요즘 많이 들리는 말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힘을 쓰는 힐링. 무조건 앞으로만 내모는 것에 정지 신호를 보내고 방치해두었던 문제들을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힐링의 핵심이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더 심하게는 답답하기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도 한다. 너무 오랫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사람들이 그렇다. 여행은 이런 이들에게 필요하다. 시동을 끄고 완전히 새로운 정비가 필요할 때, 목적지를 모르겠다면 산청으로 가보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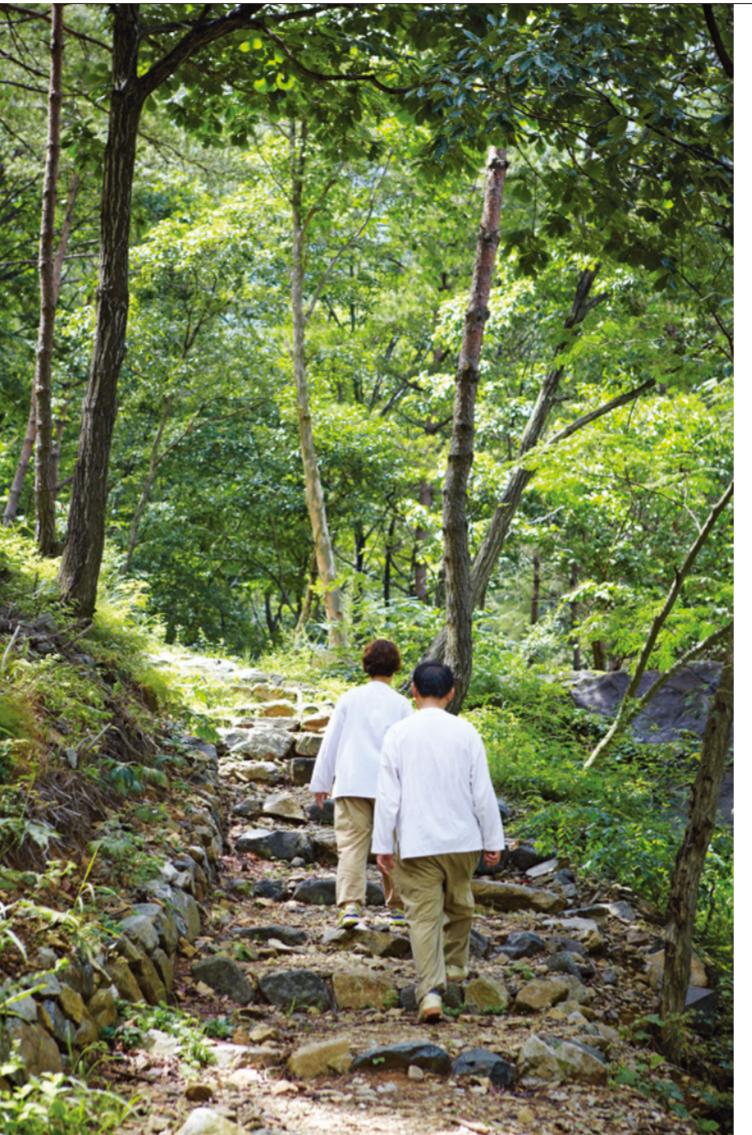
자연과 한의학으로 여행자를 치유하는 곳

물과 산, 사람이나 맑아 ‘삼청’이라고도 불리는 경남 산청은 예부터 건강한 고장으로 통했다. 지리산 곳곳에서 잡초를 이겨낸 귀한 약초들이 자라나 약선식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내년에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열린다. 이 행사를 위해 2010년 완공된 동의보감촌은 지리산 천왕봉, 대원사 계곡 등과 함께 산청의 9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의학을 테마로 한 건강체험 관광지라고 하는데 소소한 볼거리와 함께 맑은 자연을 만날 수 있어 가족 여행지로 추천할 만하다.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호젓하게 자리한 동의본가를 만날 수 있다. 동의본가는 단순한 체험관이 아닌, 1박 2일 동안 완벽한 치유를 실현시키기 위해 탄생한 힐링 호텔이다. 한옥과 한의학을 접목시킨 동의본가는 지난 6월 TV조선에서 방영한 시트콤 <웰컴 투 힐링타운>의 무대가 된 곳으로 유명세를 탔다.

드디어 동의본가에 입장. 주위 경관과 건물 외관이 무척 아름다워 입으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힘을 쓰는 힐링. 무조건 앞으로만 내모는 것에 정지 신호를 보내고 방치해두었던 문제들을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힐링의 핵심이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더 심하게는 답답하기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도 한다. 너무 오랫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사람들이 그렇다. 여행은 이런 이들에게 필요하다. 시동을 끄고 완전히 새로운 정비가 필요할 때, 목적지를 모르겠다면 산청으로 가보시길.

객실에 제공되는 화장품 역시 한약재로 직접 만든 것이다.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화장품이라고 대표가 한껏 자랑한다. 이곳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화장품을 만든 이는 ‘피부 살림법’으로 유명한 한의사 김효진 씨다. 대표는 오래 전부터 한방으로 디톡스를 연구해 온 김효진 한의사의 치료법에 반해 이곳으로 초대했다고 한다. 필봉산 자락이 폭 안겨 있는 듯한 이곳에서 한방으로 만든 집중 케어를 받는 기분은 어떨까. 응승한 접대를 하고 싶은 외국 친구가 있는데, 동의본가에 데려가면 대단한 자랑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산청의 보물들로 만든 특별한 밥상

동의본가에서 주변 경관 다음으로 반한 것은 음식이다. 네개 건강식은 오래 익히해야 조심스레 맛의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의 음식들은 첫 맛부터 입에 착 감겨 저절로 미소가 떠오른다. 각 음식의 요리 과정을 들어보면 더 기분 좋다. 빛깔도 맛깔도 훌륭한 오색 하이아미 약밥은 유기농 쌀에 홍화꽃, 백련초, 복분자, 인삼, 당귀, 황기 등을 넣고 지은 것이다. 쌀을 씻은 다음 당귀, 황기를 우린 물로 밥을 짓고 뜨거울 때 쑥가루, 백련초, 복분자물로 삼색을 들인다고 하는데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정찬에 제공되는 두충흑돈갈비찜도 매력적이다. 산청에서 생산되는 흑돼지 to 한약재에 숙성시킨 이 음식은 고기 요리 평가에 무척 인색한 사람도 후한 점수를 매길 만큼 풍미가 뛰어나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하기 위해 뜨거운 성질을 가진 두충껍질을 이용했으며, 두충나루가 가지고 있는 약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12시간 이상 우려낸다고 한다. 그 덕분에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감칠맛이 난다.

쌀국수도 별미다. 3시간 정도 우려낸 닭육수에 해물육수를 혼합하고 죽염, 통계파, 건고추를 넣어 한소끔 끓이면 시원한 국물이 탄생한다. 여기에 장국 소스를 얹으면 동의본가표 쌀국수가 완성된다. 조미료 냉여리인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쌀국수와 비교하지 마시길. 동의본가의 자랑인 밀반찬도 빼놓을 수 없다. 당귀, 방풍, 곱취, 매실, 오이, 청량초 등 산청에서 나는 약초와 재료를 이용해 담은 장아찌들은 마더 네이처 푸드의 정점을 찍는다. 이 음식만으로도 힐링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듯하다.

문의 055-973-9565(동의본가 힐링타운), 055-973-9566(주)산청문화재단)

INTERVIEW

박성미

동의본가 대표



의외였다. 생활한복을 입은 종갓집 밤며느리 같은 이미지를 상상했는데 올 블랙 차림에 짧은 머리를 한 박 대표가 자신을 소개한다. 희통한 목소리로 첫 대면부터 다양한 에피소드를 쏟아내는 것으로 보아 전직 제작자나 연출가인 듯했고 예상은 여지없이 맞았다. 박 대표는 1990년대 초부터 20여 년간 술한 다큐멘터리와 기획물을 제작한 방송인이다. 현재 폴리스TV의 편성 책임자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산청에 내려와 동의본가를 연 것은 한의학의 우수성과 힐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장소가 산청인 이유는 간단하다. 산청은 그녀가 태어난 고향이자 한의학의 미래를 책임질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산청군이 2년여 전 한의학 엑스포를 유치하고 노력할 때 지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도움을 준 것이 결정적인 인연이 됐다.

“명분이 좋더라고요. 지리산 약초 유명하지, 한의학 박물관도 있지, 이걸 살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싶었어요. 저도 그때 산청의 매력을 많이 알게 됐죠.” 이후 그녀는 산청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동의보감촌의 한옥 단지를 빌려 한의학 힐링 호텔로 리모델링했다.

청정 자연 속에 머물며 스스로 힐링을 경험한 것이 동의본가를 연 가장 큰 계기다. 20년 넘게 방송 일을 하면서 몸 정망 많이 망쳤죠. 하루 20시간씩 일하고 스트레스 심하게 밭고 식사도 대충 하고… 그런데 여기 와 있으니 세상 근심이 없어져요. 몸을 보하는 좋은 음식 먹고 계곡 물소리 듣고 하늘에 구름 흘려가는 거 보고 나무 냄새 맡으며 짐들죠. 이런 자연 속에서 한의사가 몸 상태 봐주고 치료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고인해낸 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의학 호텔입니다.”

박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한의학에 대해 공부했다. 그녀가 쏟아내는 지식은 전문가 수준이었다. ‘한방은 근본을 다릅니다. 몸 전체를 생각하며 치료하죠. 그런데 치료가 좀 느리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사람들이 길게 신뢰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편견이에요. 한의학에도 단 하루 만에 치료가 가능한 기법들이 있어요. 저희 호텔에서는 그걸 보여줄 겁니다.

1박 2일 만에 뭐가 바뀌나고? 힐링 디톡스 프로그램을 체험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녀는 한의학을 발전시킬 여러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지리산 약초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영상을 제작할 것이다. “둘러보니 제 주위에도 다 몸 버리면서 일하는 사람들뿐이라고요. 다들 너무 치열하게 세상과 쌔우며 살아요. 그래서 나 자신과 그들을 힐링해주며 살 겁니다. 힐링 산업은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죠.”

ENTERTAINER

가수 이은하 그녀는 지금 열애 중

7080을 대표하는 가요계의 디바 이은하.
그녀가 뮤지컬 배우로 변신했다.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로 단번에
관객을 사로잡은 그녀. “새로 열애를 시작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당분간 이 사랑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녀를 사로잡은 작품은 바로 〈메노포즈〉.
그 뜻을 번역하자면 ‘폐경(閉經)’이다.

폐경기를 맞은 중년 여성들의 고민을 유쾌하고 코믹하게 풀어낸 뮤지컬 〈메노포즈〉와 이은하의 인연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 2006년 국내 초연 당시 우연히 공연을 관람한 그녀는 작품에 매료된 나머지 연이어 객석을 찾은 경험이 있다. “매우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이번에 출연 제의를 받고는 단번에 수락했죠. 물론 6년 전과 달라진 점도 있어요. 그 맨 이 작품이 엄마 얘기 같았다면 지금은 바로 제 얘기라는 거죠.”

쉼없이 노래하고 춤추는 무대
뮤지컬 연습은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약 두 달간의 연습 과정은 더 없이 즐거웠다. 가수 이은하를 벗고 50대의 한 여성으로서 배역에 열정적



중년의 마음을 보듬는 힐링 뮤지컬 〈메노포즈〉

전설의 디바 이은하와 함께 돌아온 뮤지컬 〈메노포즈〉는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폐경기에 대한 근심을 유쾌한 터치로 풀어낸 작품이다. 성격이 다른 중년 여성 네 명의 이야기를 통해 엄마, 아내 등 역할에 몰려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잊은 이들에게 스스로의 인생을 되찾고, 새롭게 태어나 삶을 즐기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한층 사랑하게 되는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할 뮤지컬 〈메노포즈〉는 10월 28일까지 영등포 티즈웨이 내 CGV 팝아트홀에서 상연된다. 문의 02-744-4334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

〈메노포즈〉는 여리고로 이은하에게 전환점이 된 작품이다. 40여 년간 솔로 가수로 활동해온 그녀에게 협업의 중요성을 알려준 고마운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메노포즈〉는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싱글인 저는 결혼한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살잖아요. 나이 든다는 걸 잘 못 느껴요. 이번 작품을 통해 비로소 그 의미를 새기게 된 거죠. 성숙의 과정을….” 그녀는 이번 작품을 통해 조만간 겪게 될 통과의례를 준비하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생기기 증상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감기 같은 거잖아요. 감기에 걸려 심하게 앓거나, 아니면 미리 예방 주사를 맞거나… 저는 이 작품으로 벌써 면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제 스스로에게 도움이 많이 된 고마운 작품이에요.” 그런 면에서 〈메노포즈〉는 여성뿐 아니라 중년 남성에게도 좋은 처방이 될 것이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제2의 시즌기에 접어든 아내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은하의 〈메노포즈〉 예찬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내년이면 데뷔 40주년을 맞는 그녀는 한창 재즈 앨범과 공연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오직 〈메노포즈〉의 PW일 뿐이다. 이번 무대라면 뮤지컬 배우 이은하. 그리고 열정으로 되살아난 여자 이은하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CULTURE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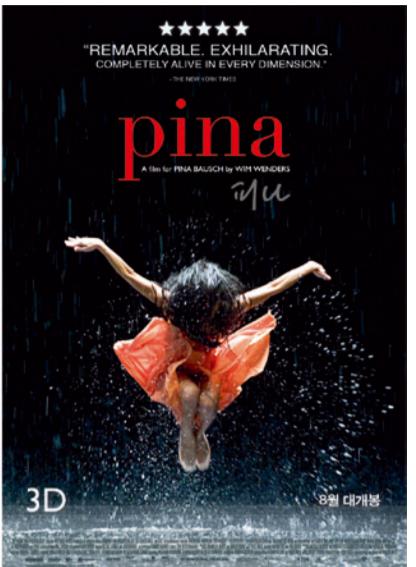


이름다운 날들의 기록
내셔널 지오그래픽 展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들이 다시 한국을 찾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의 진귀한 모습들을 담은 이번 전시는 지난 2010년에 비해 한층 풍성해진 모습으로 관객과 만난다. 18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자구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 하늘, 땅, 바다의 각 생명체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지구와 환경,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환경과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10월 11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기름디자인미술관. 문의 02-6263-2621

Brush Dance 이의태 개인 展

서양화가 이의태가 또 한 번 ‘한지’로 돌아왔다. 이번 전시는 일본 하이쿠의 한국적 버전을 뜻하는 ‘아이쿠’란 제목으로 열리는 세 번째 전시로서, 작가 특유의 독특한 필치로 그려낸 전통 한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미국에서 20여 년간 다양한 장르의 아트스트로 활동한 이의태는 귀국 후 줄곧 먹그림을 통해 자연 속 빛과 물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그림을 그려 물로 씻어내고 헛빛에 말린 후 그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고 씻어내고 구기는 작업을 반복하는 행위. 이것이 작품 속에서 진정한 빛과 물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작가는 믿는다. 9월 7일까지 청담동 갤러리 후. 문의 070-8874-4848



20세기 빛난 위대한 무용가 피나 바우쉬 (1940~2009). 연극과 무용의 경계를 허문 ‘탄초테이터(Tanztheater, 극무용)’라는 혁신적인 장르를 탄생시킨 그녀의 경이로운 작품 세계가 3D 영화로 부활했다. 〈베를린 천사의 시〉 등을 강도한 독일 영화의 거장 빌 벤더스가 제작을 지휘한 이번 영화에서는 피나 바우쉬의 작품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봄의 제전’, ‘카페 렐러’, ‘콘트라흐트’, ‘보름달’ 네 편의 역작이 소개된다. 아울러 피나 바우쉬의 삶을 담은 다양한 이미지와 미공개 파일, 탄초테이터 무용단원의 완벽한 임상들까지 함께 만날 수 있다. 영화는 촬영 직전 피나 바우쉬의 깊직스런 타계로 무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오랜 예술적 동지 빌 벤더스가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 생전 그녀와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Cinema



이예나 作 ‘라벨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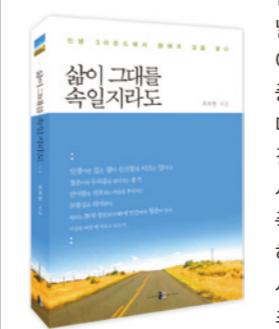
최백호 콘서트

“궂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디방에 애이~ 도리지 위스키 헌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이 시대의 영원한 남만주외자 가수 최백호가 2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 지난 45년간 대중음악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최백호의 이번 무대는 재즈파이니스트 한충완 뷔렛이 함께 꾸민다. 최백호 특유의 세련된 트로트와 재즈의 만남으로 새로운 색깔의 음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만에 대하여’, ‘영일만 친구’, ‘보고 싶은 얼굴’ 등 주옥같은 히트곡들에 더해 재즈·팝 무대까지 선보일 이번 콘서트는 최백호의 색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9월 9일 오후 7시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문의 02-3143-5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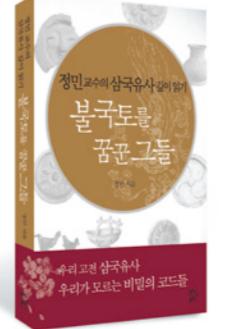


Stage

Books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문득 멈칫할 때가 있다. 청춘의 푸른 터널을 지난 후 때로 사막 같은 삶의 한복판에 서서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을 대면할 때. 이 책은 바로 그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당혹스러워하는 중년에게 던지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다. 저자는 스스로에게 길을 끊고 그 해답을 시에서 찾는다. 시인들의 영혼이 담긴 시는 죽비가 되어 정신을 퍼뜩 들게 하기도 하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시린 마음을 보듬기도 한다. 최복현 저, 양문출판사.



〈불국도를 꿈꾼 그들〉
총미진진한 역사서 〈삼국유사〉 속 종횡으로 얹인 비밀들을 소상히 풀어냈다. 한국한문학자인 저자는 ‘도화녀와 비형령’ 설화에서 신라 왕실의 복잡한 권력투쟁을, ‘서동과 선화공주’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백제 무왕의 눈물겨운 노력을 읽어낸다. 각종 고문헌을 참조해가며 사건들 사이에 엮이고 설kin 실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은 뜻하지 않은 죄주의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정민 저, 문학의문학.



〈아우 것도 하기 싫은 날〉
어쩐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자진 일상의 문을 이대로 걸어 잡고고만 싶은 날. 알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 괜스레 하우적대곤 하자면 어쩌면 이런 날이야말로 나를 사랑하기 가장 좋은 날은 아닐까. 이 책은 곁에 아무도 없는 듯한 고독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이겨내는 데 특효가 될만한 처방을 내려준다. 슬픔에 젖은 이들이 다시금 힘을 내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성 힐링 에세이. 신현림 저, 협자의 숲.

ULTIMATE DISCRETION



PIAGET ALTIPLANO

The world's thinnest automatic watch

White gold case, 5.25 mm thick

The world's thinnest automatic movement

Piaget Manufacture calibre, 2.35 mm thick

PIAGET

www.piaget.kr



Boutiques : **서울** / 갤러리아 EAST 02-540-2297 · 에비뉴엘 02-778-2300 · 현대 압구정본점 02-3449-5934 · 현대 무역센터 02-3467-8924 **부산** / 신세계 센텀 051-745-1252